

# 사진지리학의 역할과 범위

김 주 환\*

## A Study on the Problem for discussion about Photogeography

Kim, Joo-Hwan\*

**요약** : 地理學은 장소에 관한 학문이며, 장소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지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연구자료로서 축적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寫眞地理學은 사진의 記錄性과 藝術性을 지리학에 접목시킨 것이다. 즉 사진지리학은 地理學研究나 地理教育에 있어 映像媒體로서의 諸寫眞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가는 것이다. 지리학에 있어 이용되는 사진은 그 성격상 크게 地理寫眞과 一般寫眞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크게 靜寫眞과 動寫眞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單寫眞, 슬라이드, 航空寫眞, 衛星寫眞 등은 정사진에 해당되며, 비디오, 영화 등은 동사진에 속하는 것이다. 地理寫眞은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정보가 찍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히 그러한 정보를 찍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寫眞地理學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보다 효과적인 지리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 등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곧 사진지리학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된다.

**주요어** : 사진지리학, 기록성, 예술성, 지리사진, 일반사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ientifically establish the concepts of photogeography, and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pursuit of photogeography in Korea. Photogeography is to effectively utilize the documentary and artistic nature of the photo, as an image medium, in the geographic study. The concept of photogeography, along with the term photogeology, is already known widely in foreign countries, and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However, here in Korea, nobody knows the concept of photogeography. Since photogeography has not been systemized as a science, and interest in photography is being minimal, photography, in reality, has in no way been utilized effectively. The photographs used in photogeography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 into two major categories, geographic photographs and general photographs, and, according to subject and camera, into still photographs and dynamic photographs. Photographs, such as single photographs, slides, air photographs and satellite photographs are in the category of still photographs, while pictures like video and movie pictures are dynamic photographs.

**keyword** : photogeography, satellite photographs

### 1. 序論

寫眞地理學(Photogeography)은 사진의 記錄性과 藝術性을 地理學에 접목시켜 地表空間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즉 寫眞地理學은 地理學研究나 地理教育에서 映像媒體로서의 諸寫眞을 효

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分野이다. 寫眞地理學의 개념은 寫眞地質學(Photogeology)과 함께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방면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진지리학의 개념조차 定立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 동국대학교 교수

1992년 5월 9일 많은 지리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韓國寫眞地理學會」가 創立 되었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地理學者들은 지표면의 諸現象을 연구하는 地域科學者이다. 이들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리학자들은 야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지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시간, 거리, 비용, 기후 등의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航空寫眞을 이용하게 되어 효과적인 야외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야외에서 얻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을 연구실에서 사용할 경우 종종 사진은 실제 야외에서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을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地理學者는 야외에서의 研究調查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地理學者들은 「寫眞地理學」의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연구 현장에서 나름대로 「寫眞」을 이용하고 있다(American Society of Photogrammetry, 1960). 그러나 寫眞地理學이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사진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현실적으로는 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寫眞地理學의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사진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地理學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일반적인 靜寫眞, 航空寫眞, 衛星寫眞, 假想地圖 (Imaginary m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이 극히 광범위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이들 각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

략하고 사진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 사진을 어떻게 地理學研究 및 地理教育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 2. 寫眞의 理解

### 1) 寫眞의 特性

#### (1) 寫眞의 一般的 特性

寫眞은 映像言語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여지기 위하여 촬영되며 오늘날 우리는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映像文化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신문의 보도사진이라든가 잡지의 광고사진, 홍보를 위한 사진 등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사진에 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그 저변인구의 확산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에서도 사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sup>.

寫眞의 궁극적인 과제의 하나는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寫眞은 자연적인 형태 속에 내재하는 事物의 속성, 생명감을 카메라의 독자적인 질감묘사로 영상이라는 세계 속에서 탐구해 가는 것이다.

카메라는 사회의 모든 현상의 사실성을 기록하고 보도하여 주기 때문에 그 진실성의 발휘는 어떠한 繪畵도 따를 수 없으며, 문학의 記錄이나 實錄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카메라는 지구의 모든 장소에 있어서 여러가지 현상과 사건의 목격자이며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또한 무한한 우주를 향한 탐구자가 되기도 한다.<sup>2)</sup>

#### (2) 映像言語로서의 寫眞

##### ① 寫眞은 言語이다

1) 양재문, 1991, "영상언어로서의 사진," 한국사협, 한국사진작가협회, 5월호(통권 131호), P.60.

2) 최민식, 1987,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협, 사단법인한국사진작가협회, 6월호(통권 87호), pp. 29-30.

사진은 그림이 아닌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진은 지시기능, 고발기능과 더불어 유머의 기능까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나 사진은 찍는 사람과는 상관 없이 사물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적 기능은 사진을 만국 공통어로 만들고 있다. 또한 사진은 문학과 함께 직접적인 고발 기능도 갖고 있으며 유머 기능 역시 사진과 문학만이 갖는 기능이다.

## ② 寫眞의 位置

사진은 미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視覺藝術을 모두 미술로 본다면 광의의 미술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진은 성격상 미술보다는 문학에 가깝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문학적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진이며 따라서 사진은 미술과 문학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로는 회화와 문학적 성격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영상성을 확립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는 회화적 양식을 추구하던 사진으로 보는 사진, 근대는 문학성을 바탕으로 한 읽는 사진, 현대는 독자적 영상성을 바탕으로 한 느끼는 사진시대라고 볼 수 있다.

## ③ 自然言語와 映像言語

自然言語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며, 人爲言語는 자연언어 이외의 모든 의사 표시 수단, 예술작품 등을 말한다. 영상언어로 분류되는 사진 및 영화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자연언어와 인위언어를 같은 수준의 언어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자연언어는 관념적, 포괄적,

추상적, 간접적, 지역적 제한을 받으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적당하며 구체적인 事象의 표현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대해 영상언어는 개별적, 분석적, 구체적,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알맞는다.

사진은 언어이기 때문에 자연언어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상언어의 참 뜻은 자연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자연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매개체로도 표현 불가능한 대상에 사용할 때 그 참 뜻이 살아난다.<sup>3)</sup>

## (3) 地圖와 寫眞

지도는 평면적인 범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지도는 「상당히 특수한 인공적인 심볼 체계이며, 정보를 가능한한 一義的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즉 지도는 극히 훌륭한 소재를 제공하고, 현실세계를 일정한 약속된 체계하에서 추상화 하여 어느 정도 定型化시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지도에는 범례가 분명하게 제시되나 사진은 그렇지 않다.

제시된 사진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표현된 정보에 대해 잘 보고, 읽는 행위를 하게 되나 이때 촬영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사진을 보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는 보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하베이(1969)는 「지도에 내포된 정보의 식별이나 평가에 있어, 地圖使用者의 능력은 주관적 요소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地理寫眞에 적용한다면, 사진에 담겨진 정보의 解讀은, 우선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3) 한정식, 1992, 상계서, P. 65.

(4) 視覺의 思考의 틀로서의 寫眞

사진은 국경없는 視覺言語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문화생활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이다. 사진은 아름다움이 추구되는 어느 곳에서나 카메라에 의하여 손쉽게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수단도 영상의 형태로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視知覺은 앉은 자리에서 사진만 보고도 천대만상의 상황, 실상의 疑似現實을 代理體驗함으로써 정보처리 능력의 時空을 단축하고 현실 못지않은 臨場感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寫眞術이 사회문화 예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知力이나 發想에 「視覺의 思考의 틀」로서 사색과 상황 등을 사진적인 영상으로 유도케 하는 것은 사진이 지니고 있는 현실성 반영의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술은 「記錄과 表現의 두 軸」의 기능을 지니며 문화 예술영역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sup>4)</sup>

(5) 寫眞의 機能的 特性

사진의 기능적 특징으로서는 카메라 앵글, 클로즈업, 톤의 조절, 프레임의 결정, 질감묘사, 몽타주, 렌즈의 특성 등의 기법을 들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의 응용으로서는 퍼스펙티브, 팬포커스, 망원촬영, 흔들림이나 흐리게 찍는 기법, 스톱촬영, 예측촬영, 시추에이션 촬영법 등을 알아야겠고 창작성을 추구한 示唆로서 유음사진, 특수한 사진기법, 공간감각의 표현, 왜곡과 과장, 우연성의 발견, 운동성의 개발 등을 보아 들 필요가 있다.<sup>5)</sup>

① 카메라 앵글

카메라의 파인더 안에 들어오는 시야를 규정해 주는 앵글이란 실제로 카메라의 위치와 피사체와의 거리, 사용렌즈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요소들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눈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것도 카메라의 앵글에 잡혀지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 결국 표현에 있어 카메라 앵글의 역할은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 주는 수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수단이 되어 주는 것이다.<sup>6)</sup>

② 클로즈업

인물을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우선 그의 표정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얼굴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인물의 마음이 들어난다. 즉 내면적 현실이 배어 나온다. 사실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나 성격을 잘 묘사해 낼 수 있다면 거기에는 무한한 창조성이 있다. 클로즈업이 갖는 무한한 창조성은 잠재 의식적인 것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미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현수단일 수 있으나 손쉬운 기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흥미로 다루어지는 위험성이 있다.<sup>7)</sup>

③ 톤

모든 사진은 톤(tone)의 점이적인 변화에 의해 표현된다. 에드워드 웨스톤은, 「이러한 “점이적인 변화”는 사진적 표현의 상표(trademark)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환언하면 점이적인 변화 때문에 그림의 대상이나 회화와 구별되는 사진

4) 김용필, 1990, “寫眞의 圖式,” 한국사협, 한국사진작가협회, 2월호(통권 117호), P. 24.  
5) 고영일, 1991, “표현을 위한 기초적 사진문법,” 한국사협, 한국사진작가협회, 7월호(통권 133호), P. 72.  
6) 고영일, 1991, 상계서, P. 73.  
7) 고영일, 1991, 상계서, P. 73.

의 특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접이적인 변화가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sup>8)</sup>

④ 프레임(frame)

카메라의 파인더의 네모난 테두리인 프레임에 의해서 사진의 構圖는 성립된다. 그러나 사진에서의 구도는 그림에의 구도와는 다르다. 그림이 화면 안의 독립된 세계를 중시하는데 대해, 사진은 프레임된 화면의 공간이 항상 화면 밖의 세계와의 교류를 염두에 두는 구도 - 즉 심리적 효과나 운동이나 사진의 연속성, 극적인 전개, 이야기의 도출 등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sup>9)</sup>

⑤ 質感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창의성과 개성을 시각화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렌즈의 능력 차이를 알아야 한다. 재질감의 파악, 촉각적 효과, 실재감 등을 통하여 내면성을 묘출하는 데에 사진의 특성이 있다. 특히 클로즈업과 병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시각을 초월한 질감묘사는 매력이 있다.<sup>10)</sup>

⑥ 몽타주(montage)

몽타주란 조립한다는 건축용어의 프랑스어인데 특히 영화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요약, 총격의 효과를 올리는 수법으로 쓰여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 창조적 표현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사진에서의 몽타주 방법으로는 한장의 사진

에다 여러번 촬영하는 방법, 두장 이상의 네가를 겹치는 방법 등을 섞고 되풀이 하는 경우와 엮음사진으로 여러 사진을 나열함으로써 영화 비슷하게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마련하여서 심리적 표현이나 관념의 영상화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sup>11)</sup>

⑦ 렌즈의 특성

여러가지 교환렌즈의 시각적 기능의 특징에 따라 사진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 렌즈는 그 기능상 크게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렌즈는 대상의 퍼스펙티브가 거의 육안과 비슷하여 작가의 이미지가 실지로 보고 있는 듯한 표현의도인 경우에 사용된다.

광각렌즈는 원근감이 강조되고 대상을 왜곡되게 묘사함으로써 대담한 화면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자극적, 감각적, 집적적인 영상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 주관적 이미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

망원렌즈는 원근감이 감소되어져서 평면화된 느낌을 주며 피사계심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의 배경이 상당히 흐리게 찍힌다. 따라서 찍고자 하는 대상만을 찍어서 상징적으로 또는 추상화하는 때나 패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화면을 처리하는데 적당하다.<sup>12)</sup>

2) 寫眞의 主題와 素材

사진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기술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이다. 사진에 가장 효과적인 주제를 잡아내는 능력, 그 주제를 가장

8) 고영일, 1991, 상계서, P. 73.

9) 고영일, 1991, 상계서, P. 74.

10) 고영일, 1991, 상계서, P. 74.

11) 고영일, 1991, 상계서, P. 74.

12) 고영일, 1991, 상계서, P. 75.

효과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소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발로 찍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진은 발로만 찍어지지 않는다. 사진은 발보다 앞서 머리로 찍는 예술임을 명심해야 한다.<sup>13)</sup>

(1) 寫眞의 主題

작가가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은 그대로 사진의 주제가 된다. 자연이나 사회의 모든 현상, 사람들의 생활 및 감정 등 모든 것이 사진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사진에 가장 알맞은 것은 시각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주제이다. 사진에 적당하지 않는 주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즉 애국심, 효도, 고뇌, 갈등, 선과 악 등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념적인 것은 전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사진이 다루는 내용은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이 주제라 할 때 생각이나 느낌은 그 자체가 이미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인 것이다.

(2) 寫眞의 素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사진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진은 있는 것만 찍을 수 있지 없는 것은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있는 것은 모두 찍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다 찍으면 사진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진에 알맞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3. 地理學에서의 寫眞의 應用

1) 寫眞의 藝術性과 記錄性

(1) 寫眞의 藝術性

寫眞은 감정의 움직임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이며 예술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기쁨이다.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먼저 예술가가 속한 현실 속에서 주제가 선정되고 그 곳에 예술가의 사상과 감동 체험을 더하여 창작과정이 시작된다.

寫眞이 예술이나 아니냐 하는 논쟁은 사진의 발명초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사진이 하나의 창의적인 관념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사진은 분명히 예술작품이며 그 창작행위는 예술활동인 것이다. 사진은 그 특성상 과학기술과 예술이 맞닿는 곳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의 매개체인 카메라의 기계적인 요인과 렌즈, 현상액 등은 사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적 기술이다. 또한 사진의 美學的인 가치, 내포된 의미, 인간의 시각을 집중시키는 요소 등은 사진의 예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寫眞의 記錄性

사진은 實態의 기록과 전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생활의 오염과 침체되는 요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그 기록활동은 격동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사진의 기록과 전달성은 인간의 생존욕구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과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진가들에 의해 기록된 걸작들은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권을 쟁취한 증거품이기도 하다.

사진을 기록과 전달의 기능면에서 보면, 사진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사진을 제작하여야 한다. 첫째, 촬영관계는 기술면보다 달성하

13) 한정식, 1985,

려는 목적에 더 가치를 두는 작품태도를 가져야 하며, 둘째, 사진술은 美的 또는 창작적 표현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종속적인 수단의 것이 아니고 사진 특유의 표현방법으로 전달되는 사진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여야 한다.<sup>14)</sup>

## 2) 地理學에서의 寫眞의 利用

### (1) 地理寫眞

地理學은 장소에 관한 학문이며, 장소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지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연구자료로서 축적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언어, 지도, 스케치, 그래프, 사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진은 다른 전달 수단과는 달리 현장의 풍부한 자료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기록해 주는 것으로서 「데이터 뱅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은 뿐만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지리교육의 장에서 시청각교재로서도 크게 이용된다. 이와같은 이용목적에 갖는 사진을 地理寫眞이라고 한다.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은 크게 위성사진·항공사진·일반사진 등 세가지가 있다. 위성사진은 지구규모의 광대한 범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며 항공사진은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다. 일반사진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촬영한 경관사진을 말한다.

사진은 일종의 지리적 사상을 전달하는 기호이므로 지리사진을 통해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는 피전달자의 해석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해석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일반사진에는 이러한 규칙이 전혀 없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모든 사진은 지리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든 그 장소의 지리적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리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리사진이라면, 지리학자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적에 따라 지리적 사상을 하나의 영상자료로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리사진에는 지리학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 (2) 地理寫眞의 대상과 내용

지리사진의 대상이나 내용은 사실 다양하다. 간단히 표현한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세계」속에서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는 장소, 특히 지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진으로서 효과적으로 표현가능한가 아닌가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 (3) 地理寫眞의 條件

지리학 연구자가 야외에서 연구를 위해 기록이나 자료로서 地理的事象을 촬영할 경우 그때의 사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주관적이 되고 의욕적인 것이 되기 쉽다. 쓰안(1979)은 「知覺과 개념작용은, 인간의 경험 중에서의 連續體이고 눈이 본 것과 카메라가 찍은 것과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조화된 현실의 分節이다」라고 한다. 결국 사진을 찍는 행위는 視知覺像의 認知로부터 시작되어,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기술을

14) 홍순태, 1990, 상계서, P. 71.

합한 것이다.

지리사진은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정보가 적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히 그러한 정보를 찍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지리연구자는 지리적인 제요소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장소를 어떻게 관찰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리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연구자의 눈으로 만 파악할 수 있는 촬영대상이며, 지리연구자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다.

지리사진은 과학적인 精密性과 藝術性을 견비해야 한다. 사진이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면에만 치중되면 이는 지리사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지리적 내용도 충분히 표현하면서 아울러 사진의 예술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그 사진은 지리적 사상의 전달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 4. 寫眞地理學의 研究範圍와 課題

##### 1) 寫眞地理學의 研究範圍

寫眞地理學은 地理學을 연구하거나 地理教育을 실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진이용방안을 연구해 가는 것이다. 사진지리학의 연구범위 즉 지리학에 있어 이용되는 사진은 그 성격상 크게 地理寫眞과 一般寫眞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크게 靜寫眞과 動寫眞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單寫眞, 슬라이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은 靜寫眞이며, 비디오, 영화 등은 動寫眞에 속하는 것이다.

地理寫眞이란 지리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지리적 의미, 내용 등을 나타내는 사진을 말한다. 지리사진의 자료적 특징은, 직접 실물을 보지 못하거나 말로만의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

고, 완전히 잘못 이해하거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상을 전달하며 언어보다는 오랫동안 인상에 남는다. 또 현실적이고 생생하며 풍부한 의미와 정서적 경험을 갖게 한다. 이것을 지리학습의 현장에서 사용할 때, 학습에 변화를 주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한 질문을 부가함으로써 관찰, 사고, 판단하는 과학적 태도와 문제해결의 능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보관하기 편리하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리사진은 그 내용상 크게 지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 표본적 사물을 표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지리적 목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진도 지리학연구나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체의 홍보용 잡지 및 포스터, 교양 잡지, 신문, 화보, 달력, 그림엽서, 우표 등에 실린 사진들 중에는 지리적 의미가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진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발견해 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진을 지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세와 능력이 요구된다.

航空寫眞은 대부분이 大縮尺地圖를 제작하기 위해 空中測量에 목적을 두고 촬영된 특수 사진이다. 航空寫眞測量은 地形圖를 만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을 뿐만아니라 정밀한 현지기록으로서의 항공사진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는 사진판독 분야가 크게 발달하였다. 항공사진은 지형도와 함께 지리학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衛星寫眞은 지구 상공에서 떠도는 人工衛星으로부터 지구를 촬영하여 지상으로 보내온 사

15) 김연옥, 1992, 地理教育研究, 教育科學社, pp. 386-388.



진을 말한다. 위성사진 중 특히 지리학에 가장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地球資源探查衛星寫眞이다. 지구자원탐사위성은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에 비해 덜 알려져 있으나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遠隔探查(remote sensing)의 비약적인 발달로 현재 인류는 우주로부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축척 1/100 만, 사방 1,185km의 합성 화상을 지표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 2) 寫眞地理學의 課題

### (1) 寫眞地理學者의 姿勢

寫眞地理學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보다 효과적인 지리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 등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곧 사진지리학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된다.

寫眞地理學은 지리와 사진을 합성하여 연구하는 것이지만 지리학자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실 위의 조건 중 첫째의 것 즉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진지리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촬영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 예술적 자질을 키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 (2) 地理寫眞의 撮影과 整理

地理寫眞의 촬영은 우선 그 목표물을 발견,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어떤 지리적 경관이 있을까 하

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지리사진의 촬영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첫째, 촬영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한다. 둘째, 촬영대상에 맞는 렌즈와 필름을 선택한다. 셋째, 시간적·공간적 변화과정을 강조할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 촬영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축척을 알 수 있도록 스케일을 적절히 활용한다. 다섯째, 촬영일지를 자세히 작성한다.

촬영된 사진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지리사진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훌륭한 사진촬영 못지않게 사진정리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방법도 꾸준히 개발해 가지않으면 안된다. 보관되는 사진의 형태는 네가인 경우와 슬라이드인 경우,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인 경우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인 경우 등 그 유형에 따라 극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일련번호·제목·촬영날자·장소·필름 형태 등이다. 주지리사진을 효과적으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사진지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 (3) 地理寫眞의 利用

아무리 훌륭한 地理寫眞을 촬영했다고 해도 그 사진을 적절히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진지리학에서는 그러한 사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16) 김연옥, 1992, 상계서, pp. 395-397.

하는 방법을 또한 꾸준히 개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地理寫眞의 이용은 크게 지리학의 研究的 측면, 地理教育的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학의 연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리학 분야 예를들면 地形學, 氣候學, 文化地理學, 環境地理學, 土壤地理學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사진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각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논문 작성은 물론 각종 전문서적이나 교과서 집필에서 사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리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진자료 중 지리교육의 대상과 주제에 알맞은 사진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지리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때는 교육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사진의 종류, 사진의 크기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4) 韓國寫眞地理學會의 活動

한국의 사진지리학 발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韓國寫眞地理學會의 활동이다. 아직 寫眞地理學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진지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창립된 한국사진지리학회의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사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寫眞과 地理學의 접목을 구상하던 중 필자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젊은 地理學者들을 중심으로 1992년 5월 9일, 한국사진지리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본 학회는 창립 직후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사진지리」제호의 학회지를 3호까지 발행하였으며 9회의 현지촬영, 3회의 地理寫眞展示會(「寫眞과 地理와의 만남」)를 개

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해왔다. 사진지리학의 보급은 창립초기라 여러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듬어지고 충실해져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에는 큰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

## 7. 요약 및 결론

지리학은 장소에 관한 학문이며 그에 관한 정보는 사진을 통해서 전달 보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과 사진과를 접목시켜 사진을 통한 효율적인 지리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사진과 회화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였으나 그 차이점 또한 분명하다. 즉 사진은 인식의 예술이고 회화는 창작의 예술이며, 사진은 분석적 매체이고 회화는 종합적인 매체이다. 또한 사진은 시간예술이고 회화는 공간예술이다. 사진이 과학을 바탕으로 한다면 회화는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진과 회화는 제작방식이 전혀 다르다.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을 넓은 의미에서 「지리사진」이라고 말한다. 지리사진이란 학술사진의 일부로서 지리학 연구나 교육에서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상이나 장소의 파악, 지표현상의 분석에 이용되는 사진으로서 이들 목적에 맞도록 과학적 논증의 증거로서 충분한 지리적 내용이 있는 사진을 말한다.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은 그 성격상 지리사진과 일반사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정사진과 동사진으로 구분된다. 사진지리학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보다 효과적인 촬영기술, 예술적 감각등이다.

지리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해야하고 촬영대상에 맞는 렌즈와 필름을 선택하며 시간과 공간을 강조할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번 촬영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을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리사진은 연구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 이용된다. 연구적인 측면은 주로 계통지리학에서 응용되며 교육적인 측면은 지리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된다. 이 때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육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사진의 종류나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지리사진의 기록성은 객관적인 기록과 주관적인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사진에는 지리적인 사상에 대한 작가의 가식없는 안목이 정리되어야 하며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지리철학이 담긴 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되었을 때만이 지리사진의 기록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사진은 지리적인 안목을 가진 사진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리사진은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독자성이다. 지리사진도 피사체가 지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일 뿐 사진이 갖추어야 할 예술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여기서 독자성이란 사진으로 표현된 어떤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의 표현에서는 주제와 소재의 파악이 중요하며 혼란 소재는 피하여야 한다. 지리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기술 보다는 사물을 지리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항공사진, 지리사진등을 이용하여 특히 학위논문에서도 많은 사진자

료의 첨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을 지리학 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단시간내에 시각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사상과 내용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文 獻

- 金蓮玉, 1992, 地理教育研究, 敎育科學社  
 金周煥·姜永福, 1990, 地圖學, 新羅出版社  
 朴達根, 1970, 寫眞教室, 松園文化社  
 한국사진작가협회, 사협, 1987년 4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협, 1987년 6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협, 1991년 5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1990년 10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1990년 2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1991년 7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1992년 3월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 67호(1985년 1월)  
 石井 實, 1988, 地理寫眞, 古今書院  
 J.A.E.Allum, 1966, Photogeology and Regional Mapping, PERGAMON PRESS  
 American Society of Photogrammetry, 1960, Manual of Photographic Interpretation, The George Benta Company, Inc. Menasha, Wisconsin